

■ <요약> 지역간 정보화 수준 격차

- 지역정보화지수로 평가한 정보화 수준은 지역간에 최고 3배 가량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시급한 실정임
 - 사회정보화지수 : 전반적인 정보 인프라와 정보 활용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서울이 238.15로 가장 높고, 전북이 48.72로 가장 낮음
 - 경제정보화지수 : 경제부문에서 정보화의 확산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충북이 168.19로 가장 높고, 제주가 31.74로 가장 낮음
 - 정부정보화지수 : 지방정부의 정보화 추진 의지와 지원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서울이 125.05로 가장 높고, 충북이 63.01로 가장 낮음
 - 지역정보화지수 : 위 3개 지수를 가중 평균한 종합 지표로서, 서울이 169.47로 가장 높고, 광주·전남이 55.82로 가장 낮음

-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지역간 경제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간 균형 있는 정보화 추진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함
 - 정보화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려야할 보편적 서비스가 되어야 함
 - 지역별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정보화로 정보화 정책의 무게중심 이동

□ 지역 정보화의 의의

- (경제적 의의) 지역 정보화는 지역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선도하는 동력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 지역 경쟁력 결정 요소 : 중화학공업 시대에는 가용 자본과 인력, 수송 인프라가 특정 '지역'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으나, 현재 도래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정보화 인프라와 정보기술의 활용 능력을 가진 인적자본이 지역의 경쟁력 결정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게 됨
 - 지역 경제 활성화 요인 : 지역 정보화의 진전은 그 자체가 새로운 사업과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신규 업종의 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됨
- (사회복지적 의의) 정보화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기반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정보기술을 이용하면 지역 주민들은 생활 정보 및 사업 정보, 행정서비스, 진료 서비스 등을 손쉽게 빠르게 활용할 수 있음

□ 지역별 정보화 수준의 평가

- (지역정보화지수) 본 연구원은 특정 지역의 정보화 진전 및 확산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¹⁾로서, 사회정보화지수, 경제정보화지수, 정부정보화지수로 구분·산출함
 - 사회정보화지수 : 지역별 정보화 인프라 수준과 정보기술의 활용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정보화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지표임
 - 유선통신 시설수, 유선통신 가입자수, 유선통신 매출액, 부가통신망²⁾ 보유회선

1) 정보화 수준의 국가별 비교를 위한 지표 못지 않게, 특정 국가 내의 지역간 정보화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역별 정보화 지표의 개발도 지역간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중요한 작업임

2) 부가통신망 서비스에는 온라인 정보제공, 신용카드 검색, 컴퓨터 예약, 전자문서교환(EDI), 원격통신 등이 포함됨

수, 부가통신망 가입자수, 부가통신망 매출액, PC보급률, PC통신 가입자수, 종합 정보통신망(ISDN) 가입자수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 **경제정보화지수** : 지역내 경제 부문의 정보화 확산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 지역내총생산(GRP) 대비 정보통신산업의 비중, 정보통신 사업장 비중, 경제활동 인구 대비 정보통신산업 고용인구의 비중 등을 이용하여 계산함
- **정부정보화지수** : 지역 정보화의 주도 및 지원 조직으로서 각 지방정부의 정보화 수준과 정보화 의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임
- 지방 자치단체의 공무원 대비 전산인력 비중, 자치단체 내의 PC보급률, 총예산 대비 정보화예산 비중 등을 이용하여 계산함
- **지역정보화지수** : 지역정보화 수준에 대한 종합적 지표로서 위 3개 지수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했는데, 기초 지수에 해당하는 '사회정보화지수'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음³⁾

< 지역별 정보화지수의 비교 >

	지역정보화지수			
	사회정보화지수	경제정보화지수	정부정보화지수	
서울	169.47 ①	238.15 ①	122.33 ③	125.05 ①
인천·경기	94.24 ②	58.20 ⑥	147.30 ②	89.24 ⑤
충북	90.53 ③	52.94 ⑦	168.19 ①	63.01 ⑩
대구·경북	85.32 ④	52.14 ⑨	116.84 ④	98.03 ④
대전·충남	80.36 ⑤	97.39 ②	69.48 ⑤	68.53 ⑨
부산·울산·경남	72.98 ⑥	58.60 ④	47.06 ⑦	118.09 ②
강원	67.24 ⑦	77.84 ③	46.85 ⑧	80.18 ⑧
전북	65.20 ⑧	48.72 ⑩	51.30 ⑥	101.09 ③
제주	58.02 ⑨	58.33 ⑤	31.74 ⑩	83.90 ⑥
광주·전남	55.82 ⑩	52.43 ⑧	35.06 ⑨	81.11 ⑦
전국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 한국전산원(1998),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1998), 「'98년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통계청(1998), 「지역통계연보」; 통계청(1998), 「경제활동인구연보」

주 : 각 지수는 전국을 100.00으로 삼아 계산한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임. 지수 산정에 사용된 자료는 1997년 기준의 수치들이지만, PC통신가입자(1998.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예산(1998), 지역내총생산(1996)의 경우 다른 연도의 자료를 사용함

3) 지역정보화지수 = (0.4×사회정보화지수) + (0.3×경제정보화지수) +(0.3×정부정보화지수)

- (평가) 지역정보화지수를 비교하면 지역간 최고 3배 가량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평가 : 지역정보화지수를 지역별로 비교하면 서울과 여타 지역의 지수 격차가 매우 크고, 가장 낮은 광주·전남 지역과는 약 3배의 격차가 존재함
 - 사회정보화지수 평가 : 서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전북 지역과는 4배 이상의 격차가 존재함. 또한 다른 지수에 비해 사회정보화지수의 지역별 편차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⁴⁾, 사회정보화가 정보화의 출발점임을 감안할 때 이 부문의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경제정보화지수 평가 : 기존의 주요 공업지역으로 꼽히는 수도권 및 대구·경북 지역의 우세가 두드러짐. 특히 충북지역의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은 청주시에 다수의 정보통신 사업장이 입지해 있기 때문임
 - 정부정보화지수 평가 : 서울, 부산·울산·경남, 전북, 대구·경북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지수에 비해 정부정보화지수의 지역별 편차는 그다지 크지 않아 지방정부 차원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지원은 어느 정도 평준화되고 있음을 보여 줌

□ 시사점과 정책 방향

- (지역간 경제 격차 해소) 한국경제의 미래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과거와 같은 지역간 경제 격차의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정보화의 추진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함
 - 지역정보화를 지방정부의 독자적 과제로 일임하기보다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지역정보화 설계와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
 - 정보화의 혜택은 지위와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정보화의 지역간 격차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 정보화의 간선(幹線)을 구축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정보화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지역별 특성에 걸맞고 사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정보화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가야 함

■ 강용중 연구위원 klucas@hri.co.kr ☎724-4046

4) 지수별 표준편차는 사회정보화지수 57.7, 경제정보화지수 50.3, 정부정보화지수 20.2로 나타남